

# 治法을 中心으로 한 東西醫學의 比較研究

東西醫學의 比較 長短點을 論함

成樂箕\*

## I. 緒論

科學은 그것이 政治·社會·歷史等·人類文化에 關한 人文科學이든 또는 醫學을 爲始한 化學·物理·生物·天文·心理 鑛物等の 自然의 法則을 研究 發見하는 自然科學 이든 間에 그것이 完成되고 發展하는 길은 오로지 眞理에 對한 謙虛한 人間에 依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洋의 東西와 時間의 흐름에 關係 없이 永劫不滅의 鐵則인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들이 東西醫學의 長短點을 比較하고 研究하는데 무엇보다도 重要的 是 我執과 偏見에서 脫皮, 眞理에 對한 敬虔한 精神姿勢이다.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오늘날에 우리들의 周邊에는 各分野에 걸쳐서 아무런 價値와 正當性을 研究 評價함이 없이 先進國에서 由來한다는 單純한 理由만으로 外來文化를 無條件 追從하고 받아들이는 態度, 이른바 優位 模倣이 盛行하고 있으며 이로 因하여 既存文化와 傳統文化를 無價値하게 蔑視하고 唾棄하는 傾向이 漸次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社會相이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醫學이라고 例外일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外來文化 《現代醫學》가 無價値하고 傳統文化 《韓方醫學》가 優位에 있는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問題가 되는 것은 科學하는 마음의 참다운 反省과 보다 깊고 보다 넓게 그리고 보다 멀리 未來를 내다보고 모든 事物을 銳利하게 觀察할 수 있는 叡智를 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가를 究明 檢討하여 그 結果에 對하여 欣然히 承服할 줄하는 精神姿勢가 가장 重要的 是이다.

특히 20世紀 後葉에 들어서고 있는 現代科學의 特徵이 어떤 分野를 莫論하고 《비록 그것이 自然科學이 아닌 人文科學이라 할지라도》 絶對로 孤立해서는 存在될 수 없는 것으로 서로 더 깊은 데서 根本적으로 結合하고 영겨서 보다 새로운 調和와 創造가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相互結合 調和性은 時間의 흐름에 따라서 더욱 깊어 진다는데 그 特徵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보다 훌륭한 醫學의 創造를 爲해서는 東西醫學이 在來와 같이 서로 反目하거나 또는 蔑視하는 態度를 止揚하고 서로가 各其 지니고 있는 長短點을 取捨選擇해서 더 한층의 높은 統一體로 發展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날에 東西醫學에게 주어진 使命이라 하겠으며 여기에 長點과 短點을 比較研究하는 참뜻이 있는 것이다.

## II. 本論

가. 病名의 發見과 證의 發見

現代醫學이 一次的인 診斷의 目標가 病名의 發見이라면 韓方醫學의 그것은 證을 把握하는데 있다.

前者가 理化學的 또는 病理·解剖學的인 檢査 所見에 依據한 病名發見인 反面 後者는 疾病現象에서 나타나는 一般的인 綜合症候群의 證을 目的한 直觀의이고 機能的인 것을 爲主하고 있다.

때문에 設使 各種의 理化學的인 所見이 暖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鍼灸學教室

昧해서 病名 發見이 極難 現代醫學上의 治療가 어려운 疾病이라 할지라도 現存하고 있는 生的現象 《證》 만을 診察하여 處方 構成이 可能하며 아울러 治療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特長이 있다.

그러나 證만을 最善의 診斷法이란 그릇된 思想으로 말미암아 往往히 疾病處置에 커다란 誤診을 犯할 境遇가 非一非再하니 이것이 곧 韓方醫學의 短點인 것이다.

이에 對한 例를 들면

癌이나 結核 또는 各種傳染性疾患의 境遇 證만을 爲主로한 診斷보다도 理化學的 또는 病理學的 所見에 依한 診斷이 該當 疾病治療에 보다 有益한 診斷法일 것이다.

그럼으로 비록 韓方醫學者라 할지라도 境遇에 副應해서는 現代 醫學의인 診斷과 處置法을 익히는 것이 얼마나 有益하고 바람직한 일인가는 重言復言이 不必要하다고 할 것이다.

#### 나. 治法의 比較

現代醫學이 局所 또는 部分的인 治法에 置重한 醫學인 反面에 韓方醫學은 全體 또는 綜合的인 治法에 置重한 醫學이다.

換言하여 現代醫學이 個體의 모든 部分을 各專門別로 分科하여 全體와의 分離한 部分別로 治療方向을 굳이고 있는 反面에, 韓方醫學은 全體의이고 綜合的인 生理變調에 대한 調整과 均衡을 圖謀함으로써 局所나 部分的으로 發見하는 疾病 現象을 除去하고 있으며 이것을 韓方醫學上에서는 太極療法이라 指稱한다.

太極療法이란 韓方醫學이 極히 基本的인 治療原理를 云謂하는 것으로 모든 疾病治療의 根幹이 되고 있다.

實際 生命을 지닌 個體의 生理現象은 어떤 部分을 莫論하고 全體와의 完全分離狀態로는 存在할 수 없고 어떤 形態이던 全體와의 不可分의 關聯을 맺고 있다. 때문에 局所의으로 나 또는 部分的으로 發見되고 있는 病變現象

만을 對象으로한 治療方法은 眞의 根本療法이라 指稱할 수 없는 것이다.

太極療法の 價値와 妥當性이 近來에 現代醫學 分野에서도 높이 評價되고 認定되고 있는 事實로.

日本의 著名한 生理學者인 橋田邦彦博士는 그의 著書에서 『人物은 動的인 內面的統一性을 지닌 形態』라 定義, 『個體로서 人間의 存在가 生命을 保存할 수 있는 것은 動的인 內面的 統一性 卽 個體에는 各種의 臟器와 系統이 存在하고 있으나 이들 臟器와 系統은 各己 제멋대로 作用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個體로서의 存在價値를 爲하여 相互 協力하는 것을 基本으로 하면서 各己 지닌 特殊한 作用을 營爲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橋田邦博士의 所論을 整理 論述하면 個體라 일컫는 全體는 臟器와 系統이라 일컫는 各部分의 相加的인 存在가 아니고 各己 지닌 特殊作用을 營爲하는 가운데 相互 協力하여 全體的인 作用을 營爲하는 綜合的인 機能體인 것이다.

때문에 個體의 生理現象에서 營爲되고 있는 內面的인 統一性은 個體의 自己同一성과 恒常性的 保持力을 個體의 自然治癒力이라 하며 이와 反對로 自己同一성과 恒常性 保持能力 喪失을 疾病이라 한다.

韓方醫學의 治法은 이러한 個體의 自然治癒力을 助長하여 그 能力으로 하여금 病變을 輕減 乃至는 治癒케하는데 그 特長이 있다.

#### 다. 急性和 慢性疾患

急性和 慢性疾患에 對한 東西醫學의 優劣을 端的으로 判別評價할 수 있는 問題는 아니지만 概形的인 面에서 觀察 比較하여 보면 急性疾患에는 現代醫學이 能하고 慢性질환에는 韓方醫學이 優秀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現代醫學은 外因性에서 오는 急性傳染性 疾患에 그 治効가 卓越함은 勿論이고 抗毒素 乃至 血清療治法에 依據한 豫防과 治

療 韓方醫學으로서는 到底히 追從할 수 없는 優秀醫學이다.

그러나 慢性疾患에 對한 治療는 內的인 生命力을 培養하고 個體가 元來부터 享有하고 있는 自然治癒能力《疾病에 對한》과 恒常性의 保持力을 助長個體의 全體的인 生理均衡을 圖謀케 하는 韓醫學이 現代醫學보다 한층 優位에 있음을 共認된 事實이다.

이러한 事實은 近代科學이 最高度로 發達한 美國을 爲始한 西歐地域에 있어서의 慢性病의 罹患率이 漸次로 增加하고 있는 現象이 이를 端的으로 立證하고 있다.

이밖에도 極히 最近이 國際世系保健機構(WHO)에서 公表한 疾病別, 死因統計를 살펴보면 西紀 1900年度 初에는 그 死因이 外因性에서 오는 急性傳染性疾患이 으뜸이 었으나 中葉 卽, 1950年度 以後에 들어와서는 漸次로 非傳染性 退行障害《慢性疾患》로 變遷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以上の 諸事實은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가 하면 現代醫學이 아무리 發展과 成長을 거듭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尙今도 慢性疾患 處置에는 相當한 『값』을 內包하고 있음을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 라. 診斷의 比較

現代醫學의 一次的인 診斷目的이 病名 確定에 있다면 韓方醫學의 그것은 證의 確定에 있다.

그리고 現代醫學의 診斷手段이 主로 診察器具를 위시한 理化學的인 藥品檢査와 實驗에 依存하고 있는 反面에 韓方醫學의 診斷手段은 經驗的이고 直觀的인 現象爲主와 自然哲學 思想에 依存하고 있다.

특히 脈診과 經絡診斷은 韓方醫學上에서 가장 重要視하는 診斷手段으로 이것은 脈(桡骨動脈部)이나 또는 體壁에 發現하는 여러가지의 反應과 現象을 診察하여 全身機能의 盛衰와 異常 有無는 勿論 各種疾病의 所在와 轉移乃至는 病態를 鑑別 나아가서는 病變의

豫後까지 判別할 수 있는 特長이 있으나 反面에 長久한 歲月에 걸친 修鍊과 體驗이 絶對 要하는 缺點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韓方醫學上의 診斷法이 비록 形而上的이고 演繹的이어서 非科學的인 要素가 多分한 面이 있기 하지만 一旦 고 原理를 完全 體得만 하면 現代醫學上의 理化學的인 檢査나 實驗上에서 發現되지 않는 極히 微細한 病變도 能히 察知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證爲主의 萬能思想에 陷入함으로서 往往 嚴然히 科學的으로 判明되고 있는 現代醫學의 診斷結果를 無視하거나 沒却하여 當該病變에 對한 適正治療와 處置의 時期를 놓쳐 버리는 通弊가 있으나 韓方醫學을 하는 사람에게는 特히 留意할點이라 하겠다.

#### 마. 臟腑의 比較

韓方醫學은 그 生成發展의 歷史的 課程이 經驗醫學으로 出發 現今의 解剖生理學이 全無하였던 數千年前의 古代에 組織된 學說이기 때문에 臟腑의 概念도 當時의 唯一한 思想인 自然哲學을 根幹한 理論과 學說에 依據하여 定義된 生理·解剖觀과는 形態上이나 또는 機能上 相當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對한 例를 몇가지 들면

① 腎臟 : 現代醫學上에서는 다만 泌尿器만을 指稱하고 있으나 韓方醫學上에서는 泌尿器는 勿論 生殖作用까지 擴大 包含시키고 있다. 때문에 生殖機能의 衰退를 韓方醫學에서는 腎虛라 이른다.

② 心臟 : 現代醫學上에서는 다만 循環器만을 指稱하고 있지만 韓方醫學上에서는 循環期 및 精神作用까지 包含시키고 있다. 때문에 노이로제 히스테리 등의 神經疾患을 韓方醫學에서는 心火病이라 부른다. 이 외에도 精神問題를 다루는 學問인 心理學도 精神學이라 부르지 않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도 精神과 心臟과 『속크』가 있을 때 內臟의 어느 臟器보다도 心臟이 그 影響을 가장 많

이 받고 있음을 經驗할 수가 있다.

이밖에도 現代醫學의 解剖·生理學上에는 取扱치 않는 心包(臟)와 三焦(腑)의 두 臟腑는 韓方醫學의 生理學上에서는 重要臟腑로 다루고 있으며 이들 心包와 三焦에 對한 作用과 機能에 關하여서는 尙今까지도 뚜렷한 科學的인 究明과 定義가 내려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推理上에서 본 大體的인 輪廓은 다음과 같다.

① 心包 : 心囊과 心臟周邊의 胸膜을 指稱한 것으로 보이며

② 三焦 : 胸腹部的 位置를 上·中·下 三個部分으로 區分하여 그 作用과 機能을 總稱한 것으로 이에 對한 作用範圍를 概述하면 아래와 같다.

(가) 上焦 : 心·肺의 呼吸 및 循環作用을

(나) 中焦 : 肝·脾·胃·十二指腸·大小腸等の 消化 및 吸收作用을

(다) 下焦 : 小腸乳 管의 脂肪吸收作用과 腎·膀胱의 排泄 및 生殖作用을 意味하고 있다.

以上에서 論한 바와 같이 韓方醫學上에서 指稱하고 있는 臟腑의 定義와 概念은 近代科學的인 學問上에서는 納得과 首肯이 어려운 矛盾撞着點이 許多하다.

때문에 數百年을 내려오면서 臨床的인 治效가 嚴然하면서도 非科學的인 學問이라는 烙印을 찍히고 蔑視를 받고 있다.

그러나 但只 現今의 科學的인 學問上에서 그 究明이 難하다는 理由만으로 非科學的인 學問이라고 輕視하고 唾棄하는 것이 果然 妥當性을 지닌 價値觀인가를 反省할 때 否定的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科學이 設或 그 어느때보다도 高度로 發展하고 成長은 하였지만 現今의 이 時刻에도 休息없이 前進를 거듭하고 있는 發展途上에 있는 學問임을 否認할 수 없다.

때문에 어제날에 非科學的인 學問이라 烙印찍히고 蔑視받았던 數많은 事實들이 보다

發展하고 前進한 科學的인 尺度上에서는 참된 眞理로 再評價되고 再認定되고 있는 事例가 우리 周邊에는 흔히 發見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韓方醫學 뿐만 아니라 모든 分野에 있어서의 論理와 學說이 비록 現今의 科學的 學問上에서 證明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非科學的이라 速斷하는 行爲는 決코 賢明한 思想이라 할 수 없다.

#### 바. 處方의 比較

醫學의 目的은 東西醫學을 莫論하고 疾病의 輕減 乃至는 治癒에 있으며 治療의 手段方法은 特殊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藥物療法이 그 主體가 되고 있으며 藥物療法은 當該疾病에 適合한 處方構成에 衣하여 그 目的을 達成하고 있다.

특히 韓方醫學의 境遇는 鍼灸醫學을 除外한 餘他的 全部가 藥物療法에 依據하고 있다.

處方構成에 있어서 單一種 또는 數種의 藥物을 配合 調製하여 治愈의 目的을 期하고 있는 點은 東·西醫學이 다른바 없으나 藥物配伍의 原理는 相異하다. 卽 現代醫學의 處方은 各種 實驗과 檢査를 通한 藥理에 依存하고 있는 反面에 韓方醫學의 境遇는 經驗의 이거나 또는 自然哲學을 基礎로 한 藥性에 依存하고 있다.

前者의 것은 一定藥物의 有效成分을 自然科學的으로 分析研究한 藥理를 뜻하고 後者의 境遇는 直接 間接으로 얻어진 經驗의 事實이나 또는 藥物의 性質을 自然哲學的인 方法으로 分析 研究하는 것을 意味한다.

이들 두가지의 方法을 治效上에서 評價할 때 兩者가 共히 長短이 있기 때문에 그 優劣을 判別하기 어려우나 藥物의 保管에서부터 配合 調製 服用의 過程은 現代醫學의 境遇가 韓方醫學보다 越等히 優秀함은 公知의 事實이다.

近來에 와서 改良된 藥湯器와 약짜는 器具가 出現하여 多少 發展된 모습이 보여주고는

있지만 藥物管理와 藥物容器的 境遇는 前날 보다 後退한 現象을 밋고 있다. 몇가지 例를 들면

藥物保管上에 있어서 人體의 有害한 化學防腐劑를 남용하고 있다던가 또는 세멘트 및 肥料容器를 乾材藥의 容器로 再使用하고 있는 事實等이다.

이러한 藥物의 非科學的인 管理는 藥物自體의 藥性作用을 變質시킬 뿐만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서 不義의 事故를 誘發하는 危險마저 隋伴하니, 時急히 改善하여야 할 韓方界의 短點이라 하겠다.

#### 사. 長短點의 比較

東·西醫學의 長短點을 比較·評價할 때 어느 것이 長하고, 어느 것이 短하다고 그 優劣을 嚴密하게 判別하기는 極히 어려운 問題다.

그 理由는 兩者가 다같이 長短點을 內包하여 前者의 것이 後者の 것보다도 長한 點이 있는가 하면 後者の 것이 前者의 것보다 長한 點이 있기 때문이다.

例를 들면

細菌感染에서 惹起되는 炎症性疾患의 境遇, 病原菌의 殺菌과 增加阻止는 現代醫學의 人 處置가 優秀하지만 生體의 鬪病力의 助長과 自然治愈能力의 培養은 韓方醫學이 斷沿 優秀하며

外科的인 處置에서 手術分野는 現代醫學이 能하지만 痲醉는 韓方醫學의 方法이 能하다.

東·西醫學의 比較에 있어서 趙憲永先生(通俗韓醫學原論 著者)은 그의 著書에서 東西醫學의 任務를 法律(西醫學)과 道德(東醫學) 比喩, 最善의 醫學을 成就키 爲해서는 共히 必要 不可缺한 醫學임을 力說하였다.

近來에 이르러 東·西醫學의 協力問題는 一部의 現代醫學者에게도 높이 評價되고 認定되고 있는 事實로 그것이 비록 一部分에 不過하지만 鍼術麻酔가 바로 그것이다.

### III. 結 論

醫學의 窮極的인 目標은 그것이 現代醫學이던 또는 韓方醫學이던 간에 人間을 疾病으로부터 完全 解放하고 保健을 向上하는데 있다.

億兆蒼生이 森羅萬象과 더불어 生을 받고 끝맺는 삶과 죽음의 時間속에서 間斷없이 疾病로 부터 挑戰받고 威脅받는 것은 域의 東西와 古今을 莫論하고 움직일 수 없는 人間宿命이다. 이 宿命은 人間으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苦痛을 주었고 生을 앓아 갔었다.

때문에 人間은 本能的으로 또는 意識적으로 이 荊棘의 宿命과 맞서서 不斷하게 鬪爭하고 克服하여 왔던 것이며 그 手段과 方法이 東·西醫學이라 일컫는 自然哲學과 自然科學인 것이다.

歷史的인 側面에서 東西醫學의 貢獻度를 比較 觀察하면

20世紀까지는 韓方醫學이 現代醫學보다도 한층 많은 貢獻을 하였고

20世紀 中葉에 이르러서는 原子科學의 發達과 더불어 劃期的으로 發展을 거듭한 現代醫學의 成長은 疾病의 豫防과 治療는 莫論 人間 壽命에 延長까지 貢獻한바 至大하였다.

科學하는 者 特히 醫學을 다루는 者는 이 같은 東·西醫學이 지닌 尊嚴한 歷史的 偉業을 寸時도 忘却함이 없이 오직 敬虔한 姿勢로 醫學이 갖는 崇高한 目的을 指向하여야 할 줄 안다.

여기에는 東·西醫學의 區別이 있을 수 없고 있다면 오로지 兩者의 長點과 短點을 比較 研究하여 서로 補正하고 協力함으로써 보다 높은 次元의 醫學을 創造하는 聖業이 있을 뿐이다.

### 參 考 文 獻

1. 藤平健. 漢方概論 日本 創元社 1970

2. 澤瀉久敬. 醫學概論 日本 誠實書方 1983
3. 中醫學概論翻譯委員會 漢方醫學概論 日本  
上毛社 1084
4. 柴崎保三 醫學大系 日本 創元社 1987
5. 大下晴都 東洋醫學 日本 學研社 1988
6. 柴田和德 皇漢醫學 日本 創元社 1988
7. 木材三郎 漢方醫學 日本 學研社 1989